

불자 세상보기



권영민 문학평론가 한국대 석좌교수

한국어는 어느 정도 큰 언어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대개가 고개를 갸웃거린다. 유네스코의 보고에 따르면 지금 지구상의 여러 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대략 6,500여종이나 된다.

남북한의 주권과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지의 해외 동포를 모두 합한 것이다. 이것은 세계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언어 가운데 13위 정도에 해당한다. 한국은 작은 영토를 가진 나라이지만 한국어는 결코 작은 언어가 아니다.

그런데 한국어의 현실을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남북 분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한자어와 외래어의 비중이 커지면서 고유어의 영역이 좁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대중 종교인 불교의 경우에도 그 용어는 대부분 난해한 한자어를 그대로 쓴다. 더구나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매체에서는 한국어의 규범을 무시하는 글쓰기 행태가 늘어가고 있다.

경제 시장의 지구적인 통합, 정보 통신의 발달, 국제 교류의 증대 등으로 이어지는 세계화의 물결이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공백한 한국어를 버리고 영어를 쓰자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우리말과 한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유치원에서부터 영어를 가르친다고 야단이고, 방학이면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난다고 법석이다. 어떤 대학 총장은 대학에서 개설하는 강좌의 절반 이상을 영

어로만 강의하는 것이 목표임을 자랑하고, 중요 기업에서는 영어 성적만으로 신입사원 지원서를 접수하기도 한다. 방송이나 신문에도 영어가 넘쳐나고, 거리

의 광고판에 영어가 판을 친다. 한국인들이 모두 한국어를 버리고 영어를 쓰기로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영어만 말하는 것이 정말 한국인들에게 행복한 일이 될까? 실제로 한국어와 한글을 이런 식으로 쉽게 바꾸어 버릴 수 있을까? 영어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민족어를 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공용어로 쓰게 된 것이 오늘날 인도 전자통신 산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부러워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억이 넘는 인도 사람 가운데 영어를 말하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필리핀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국어와 한글 대신에 영어를 쓰기로 한다면, 우리나라에도 아마 인도나 필리핀과 비슷한 계층별 문화 지체 현상이 심각하게 나

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작은 나라 안에서 사회 문화적 통합도 이루지 못한 채 모두가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한국인들은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어와 한글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왔고, 그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고 있다. 한국인들의 생각과 행동은 모두 한국어와 한글의 구조와 성격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말과 글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 힘은 사람의 삶 속에서 암태되어 오랜 세월을 두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어와 한글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한국어는 이제 한국 민족만의 언어가 아니다. 한국어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배우고 있는 '세계어' 중 하나다. 우리는 우리의 민족어인 한국어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어와 한글을 제대로 지키며 바르게 써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어가 세계어의 하나로 당당히 인정받고 그 언어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와 한글의 현실

社說

근세 고승 학덕 조명하는 가을 축전

올 가을은 유독 한국불교 큰 스님들의 업적을 기리는 행사가 많다. 우선 9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해인사 대장경천년관서 열리는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일대기 특별전이 그것이다. 또한 개화기 한국불교계 최고 지도자였던 석전 박한영 스님을 기리는 '석전 박한영 축전'도 10월 8-19일 동국대에서 열린다. 10월 예정이었다 11월로 연기된 경해선사 열반 1백주기 기념 학술세미나도 있다.

태고종 범문사와 덕암화상문도회도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태고종 중흥을 역인한 범문사 중창주 덕암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한다. 관음종도 장종주 태허흥선조사 탄신 108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10월 10일 관음종 총본산인 서울 종로구 낙산묘각사에서 개최한다.

모두 당대에 한국불교계를 이끌던 최고의 선지식들이다. 이들을 기리는 행사들은 생

전 당시 모습을 알 수 있는 유품전을 비롯해, 서예전, 사상과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학술 세미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항상 과거 속에는 우리가 곱씹어 만들어야 할 미래상들이 널려있다. 그런 점에서 올 가을 풍성히 열리는 이 행사들은 우리 후학들에게 있어 천재일우의 기회다. 100년의 궤적속에서 살아있는 지혜를 생생히 만날 수 있고, 스님들의 청빈한 삶과 구도 역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월은 많이 흘러 큰 스님들은 우리 곁에 없다. 하지만 그 분들이 남긴 족적은 큰 울림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추위속에서는 이런 향훈들이 이심전심으로 전달 될 수 있게 알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분들이 남긴 크나큰 지표들 이면 행사들을 통해 함께 고증하며 수행자로 일생을 산 선지식들의 진면목을 물론 느껴야 할 것이다.

문화재 보존 다시 신경써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재 정책의 허술함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10월 5일 진행한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도난 문화재 현황, 재해 관리 등 문화재 정책 전반이 문제가 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재 도난은 증가 추세지만 정작 이를 지킬 수 있는 폐쇄화로 TV는 5대 중 1대가 고장 중이다. 이를 위한 보수 비용도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집행되지 않았다.

고질적인 문제인 문화재 영문 안내판은 여전히 문제였으며, 낡아 급증하고 있는 풍수해 피해에는 어떠한 대비책도, 제대로 된 복구비용 집행도 없었다.

이중 도난 문화재와 풍수해 문화재 피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도난 문화재의 경우 한번 반출되면 회수하기가 힘든 만큼 불법유통에 대해선 철저히 단속과 관리를 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훔쳐 불법

으로 유통시킨다는 것은 민족과 역사를 부정하는 부도덕한 범죄행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따라 점점 풍수해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향후 풍수해 위기 대응 매뉴얼에 사전 점검 내용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매뉴얼을 갖춰 사전 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행 문화재 영문 안내판도 오류가 많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을 생각할 때 이런 실수들은 부끄러운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해마다 해외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다. 이런 오류가 많다면 우리나라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꼴이 된다. 우선적으로 국보 안내판이라도 전수조사해 오류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전국에 산재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는 것은 단순히 문화재를 지정하는 데에 있지 않다.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과 적절한 보존 지원이 우리의 문화재를 후손에게 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해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현대불교지사안내
대구지사: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전북지사: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영주지국: (054)634-3429
부산지사: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비구니 차별 산중총회법 통과

조계종 제191회 중앙총회 NGO 모니터링 결과

1. 총회 개정안의 이월애에 대하여

지난 중앙총회임시회에서 통과된 총회 개정안을 원로회의에서 승인 거부하여 이번 회기에 다시 총회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원로회의에서 어떤 이유로 부결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없었다. 입법기관인 중앙총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94년 종단개혁이후 처음 있었던 총회 개정안을 원로회의가 승인을 거부할 때는 반대 이유를 분명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회기에서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안이 거부되었는데, 이에 대해 항의하기 보다는 원로회의의 눈치를 보면서 자진해서 법안 상정을 포기한 것이다.

이는 중앙총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중재적인 역할을 포기한 행위이므로 비판받아야 한다. 원로회의가 소위를 구성해서 총회개정안을 총회에 제출하는 것은 종단의 어른으로 존경받지 못할 행위이다.

2. 산중총회법의 통과

교구본사주지선출제도가 그동안 금권선거, 부정 선거 등으로 인해 많은 사

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이번 산중총회법은 선거제를 포기하고 합의추대방식으로 바뀌었다. 선출과정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일이지만, 그간 수많은 본사주지선거에서 금권선거의 폐해를 생각하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또한 이번에 통과한 산중총회법은 명백한 비구니차별적인 법안이다. 산중총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비구니는 비구의 5분의 1로 제한한 것은 남녀평등을 지향하고 있는 사회법보다 더욱 뒤쳐지는 것이며, 부처님의 평등사상에 위배되는 것이다. 투표권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공정성과 적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3.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포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중요한 영역임은 분명하다. 해당 사찰들은 전년도 결산서와 차기년도 예산서를 총무원 재무부에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부담금을 책정하게 되며 그 부담금은 종단활동의 주요한 재정적 기반이 된다. 포교를 위한 예산 확충이 절실하다면 종단운영의 체입을 절저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각 사찰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확대하고, 그 예산을 중도

위해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정책질의 내용에 대하여

이번 회기는 다른 회기에 비해 정책질의가 31건으로 비교적 숫자가 많아 총회의원들의 종단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정책질의 가운데 반복되는 질문들이 있는가 하면, 질문한 의원이 정작 답변을 들어야 할 때 결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총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각 부처는 나름대로 열심히 답변을 했지만, 일부 답변은 질문보다 짧아 답변이 매우 형식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만약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생각한다면 부서의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보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

5. 평균 출석률 66%

종대한 사신들을 다루는 회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출석률은 낮았다. 회기 첫날인 9월 18일은 79명 가운데 61명이 참석해 77%의 의원이 출석했지만, 오후 4시에 58명이 참석했다. 다음날인 9월 19일 회기가 시작되는 오전 10시에는 79명 가운데 46명만이 출석했고, 오후 2시에는 54명, 그리고 오후 4시 35분에는 45명 만이 출석했다. 이틀간

의 회기동안 총회의원들의 평균 출석율은 66%에 불과해 매우 저조했다.

6. 중앙총회 운영방식

중앙총회의원은 총 81명이 종단의 운영과 관련된 입법활동은 물론 총무원 각 부처의 운영 감독 등 그 역할과 위상을 볼 때 명실상부한 사부대중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원들은 회기 중에 대부분의 의원들은 성실하게 회의에 임하고 열띤 토론을 하는 등 회기가 넘어갈 때마다 점점 활기찬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총회 회의중에 이어폰을 착용하고 다른 일에 열중하거나 줄거나, 밖으로 자주 나가는 등 그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다. 또한 발언권없이 발언하거나 다른 의원이 발언 중에 끼어드는 등 총회의 질서나 의장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동들도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큰소리를 지르거나 혼자 화를 내거나, 소리내어 비웃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회의 분위기를 깰 뿐만 아니라 신중한 의사 판단을 방해하는 일이다. 의장의 진행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되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정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